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월간양계 창간 40주년 불혹(不惑)의 나이 거는 기대 커

1969년 11월, 어려운 산고 끝에 태어난 월간양계가 40년동안 한 번의 결간없이 양계인들의 대변지로 그 몫을 수행하며 작금에 이르렀다.

당시 (사)한국가금협회(양계협회 전신) 회장으로 있던 오봉국 박사의 각고 끝에 탄생한 월간양계는 본문 48페이지, 광고 단색 20, 칼라 6페이지로 발간되었다. 월간양계 표지도 김승옥(소설가) 작가가 직접 그렸고, 월간양계 제호도 서울대 윤석봉 박사가 써준 것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시 구독료는 1년에 1,000원(반년에 600원)이었으며, 1972년에는 발행부수가 1만부가 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40년이 지난 현재 월간양계(2009년 10월호 기준)의 본문은 112페이지로 증가되었고, 광고분야도 칼라 90페이지 단색 4페이지로 대폭 늘어났으며, 구독료는 1년에 7만원으로 상승하였다. 규모화 사업화의 원인으로 발행부수도 과거에 비해 6,500여부로 줄어들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양계협회 자료실에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발간해온 월간양계가 세월의 먼지속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긴 세월의 경륜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잡지가 아닌 직접 손으로 그리고 사식을 쳐서 대지에 붙이면서 만들었을 과거의 잡지 제작 과정을 상상하면 원고를 수집하고 발굴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깃든 정성을 생각하면 과거 선배님들의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갖다 놓고 라면과 소주 등으로 지내며, 월간양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선배분들의 말을 들을 때 현재 우리도 그런 소명감을 갖고 월간양계를 만들고 있는지 반성을 해 볼 때가 있다.

40년 동안 월간양계는 초창기인 60~70년대에는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양계 사양관리 등에 대한 기술 전달을, 80-90년대는 양계의 사육 및 시설 규모화, 자동화 등 양적인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2000년 이후에는 수입개방은 물론 소비자 위주의 양계산물 생산에 초점을, 최근 들면서는 FTA 협상, 안전성 문제, 동물복지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추어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월간양계가 40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거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월간양계는 정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계업계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무엇보다 크다고 본다. 과거 선배님들의 전통을 잇고 앞으로 거는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있는 정보 뿐 아니라 양계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생한 잡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 무정란 불법유통 사태 부화장에서 자체 폐기 원칙 지켜야

지난달 중순 폐기처리 되어야 할 무정란을 가공하여 제빵용으로 둔갑시킨 한 축산업자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자인 G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장에서 부화중지란 1,000만개에 대해 폐기처리 비용을 받거나 공짜로 수거한 뒤 제빵용 원료로 가공, 경기도 모 지역의 양계농협에 10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화중지란은 껍질을 깨뜨려 액란형태로 가공하면 신선한 계란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해 이 같은 일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업계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화장에서는 부화기에 들어가 1주일이 지나면 1차 검란을 통해 무정란을 색출해 내는데 이 기간에 골라내는 무정란의 비율은 약 10%(부화율 75% 기준)에 달하므로 그 양만 해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부화장에서는 이를 동물성 사료원료로 공급하거나 렌더링 또는 계분발효기 등에 섞는 등 자체처리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H부화장으로부터 유통된 부화중지란은 중간 유통업자가 무정란을 동물성 사료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속이고 가공과정에서 살균시설 등 최소한의 위생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액란으로 불법 가공해 납품하면서 허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계란유통업자들은 부화란은 부화를 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부화기에 들어간 종란이 무정란으로 판명나더라도 부화장 자체에서 폐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화기내 온도는 38℃로 1주일동안 머문 무정란은 신선도가 떨어져 식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란들이 모지역의 양계농협을 통해 납품한 액란으로 제빵과 제과점 등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한 사태로 빠져들었다.

식품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식용란에 대한 품질 기준'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이미 마련되었고, 계란에도 상미기간을 두어 유통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규정을 재 정비하고 생산자와 업자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육계 2기 대의원 출범을 앞두고 자조금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

육계의무자조금 제2기 대의원 출범을 앞두고 선거일정이 공고되고 선거구 및 선출 인원 배정이 이미 끝났다. 앞으로 육계의무자조금의 성패가 제2기 대의원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거출하고 있는 육계의무자조금이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아직도 농가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90% 이상의 농가들이 계열사들과 계약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내야 하는 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업체가 알아서 내주겠지 하는 생각들이 아직도 팽배하다. 물론 일부 계열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이해해 자조금의 80%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어 고무적이지만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거출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농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이유로 자조금 거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135명의 대의원이 출범한 이후 다음 달인 12월에 개최된 1차 대의원 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이 되면서 육계자조금의 향후 진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듬해 거출을 위한 거출결정과 거출금 비율에는 합의하였으나 결정적인 관리위원 구성에 실패하면서 장기간의 방황에 머물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몇 차례의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면서 의무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것이 금년 심기일전으로 대의원중 관리위원을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면서 4년여간의 계속되는 방황속에 어렵게 자조금 거출을 시작하게 되었다.

80명을 뽑는 이번 대의원 투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를 시작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자조금사업은 육계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가의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등 농가를 위한 사업이다. 자조금 정착을 통해 계열업체와의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뽑히는 대의원들은 육계의무자조금사업 납부 여부, 의무자조금 거출금액, 자조금사업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 등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즉, 의무자조금사업의 핵심사항을 결정하는 지역대표를 선발하는 자리인 만큼 육계농가의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육계농가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육계의무자조금의 시행을 위해 육계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육계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양계**